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29.(화)

27개국 차세대동포 리더 59명, 송도에 모였다...‘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개막

- AI·금융·언론·의료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차세대동포 한자리에...
- 10월 1일까지 동포사회 미래 논의...모국과 차세대 잇는 정책도 직접 제안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브라질의 AI 투자 전문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 대표, 일본의 기자, 미국의 한인 의료·복지 활동가 등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차세대동포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28일(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6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rner’s Conference)’가 개막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 세계한인주간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7개국에서 25~45세 차세대동포 리더 59명이 참가한다. 언론·인권·의료·복지·법률·금융·인공지능(AI)·비정부기구(NGO)·청년단체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각국 차세대동포 사회의 현안과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모국과 차세대동포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한다.
- 참가자들의 성장배경과 활동무대도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동포사회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 브라질의 김세미(Kim Semi)씨는 금융권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AWS) 선임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한인 후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엔젤투자그룹 ‘1004.group’을 설립해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김씨는 “다음 세대에게 한인 정체성은 당연한 상속이 아니라 매력적인 ‘초대’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한인 사회를 배우고 라틴아메리카의 경험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카자흐스탄의 발레리 공(Valerly Kon)씨는 고려인 강제이주의 첫 정착지로 알려진 우슈토베에서 태어났다. 현재 카자흐스탄 17개 도시의 고려인 청년들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청년연합(MDK) 의장을 맡아 교육·취업·창업·리더십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공씨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년들의 역량을 세계와 연결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들과 세계 각국의 차세대 동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본의 마쓰다 미키(Matsuda Miki)씨는 일본인 아버지와 재일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성인이 된 뒤 자신의 한국계 배경을 알게 됐다. 현재 기자로 일하면서 민단 청년회와 인권 관련 NGO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쓰다씨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연대와 공생’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다”며 “서로 다른 이주 역사를 가진 동포사회의 사례를 재일한인사회의 세대 간 이해와 다문화 공생 활동에 접목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 미국의 유혜민(Yoo Hae Min)씨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두 문화의 언어를 경험하며 성장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인 의료·복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며 한국어로 진행하는 암 환자 지원모임을 직접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유씨는 “각국의 공공·보건·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을 만나 배우고 싶다”며 “이번 대회에서 접한 사례를 미국 한인사회의 의료·복지 안전망을 넓히는 데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 대회에서는 차세대동포들이 동포사회의 미래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논의한다.

○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사례 △모국과 차세대동포를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동포 자녀 세대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모델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한다.

- 차세대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경영인이 만나는 Next Gen Business Connect' 를 비롯해 지역별 차세대대회 활동 사례 발표, 차세대동포 간 라운드테이블, 재외동포청장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대회 기간 논의한 정책 제언은 10월 1일 종합해 발표한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차세대동포는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대회에서 나온 차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여기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각국 동포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고자료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	책임자	과 장 김채영 (032-585-3213)
		담당자	사무관 윤중섭 (032-585-3215)



《 대회 개요 》

- ▶ (취지) ▲동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 등 /
- ▶ (연혁) 1998년~

- (일시/장소) 9. 28. (월) ~ 10. 1. (목), 송도 컨벤시아
- (참석대상) 거주국별 차세대동포 리더*(25세~45세) 27개국 65명
* 지역별 차세대대회 개최자 등 거주국 공관장이 추천하는 리더급 차세대동포
- (주요 프로그램) ▲분임 토의, ▲정책 설명, ▲주요 인사 방문 등
 - (분임 토의 및 종합 발표) ▲'26년 지역별 차세대대회 개최 결과 등 지역별 활동 사례 발표, ▲정책 제언* 토의 등



FLC지역대회 성과발표



정책제언 토의

**** [참고] '26년 차세대대회 정책제언 토의 주제**

-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사례 공유·분석
- 모국과 차세대동포를 이을수 있는 제도 개선·발굴
- 동포 자녀 세대를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의 모델 발굴

- (Next Gen Business Connect, 교류의장) 차세대 동포 경제인, 국내 중소기업 경영인 간 오찬 네트워킹
- (재외동포청과의 대화) 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의 정책 제언 전달
- (기타) 라운드테이블(차세대동포간 만찬 네트워킹), 폐회식 등